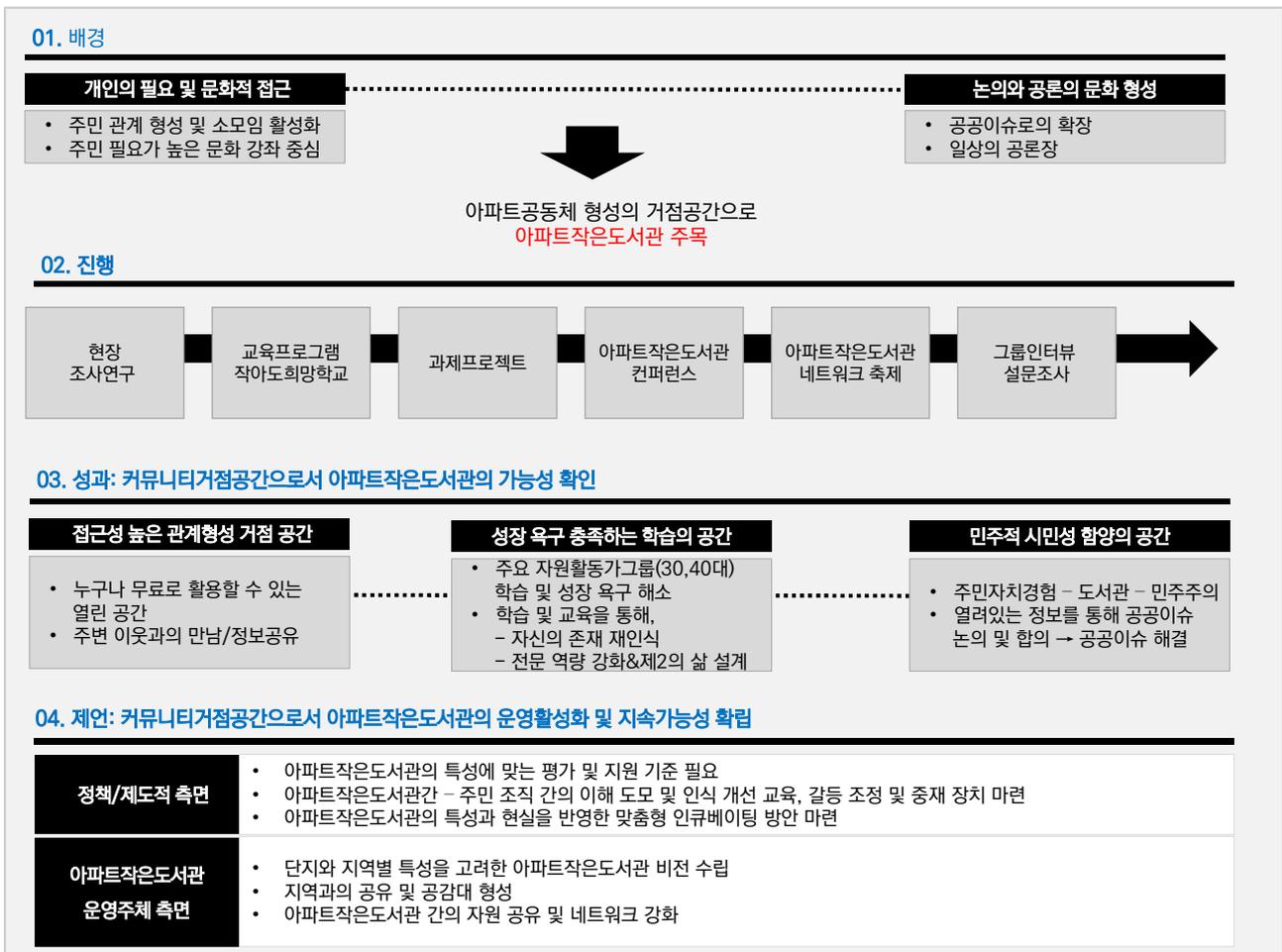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방안
 - 2015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안수정 | 시민사업팀 연구원 (sooly@makehope.org)

I 요약



키워드 아파트작은도서관, 도시형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거점공간, 주민참여형 행복한아파트만들기

소개 |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 도시의 지배적인 주거형태 변화로 발생한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주민 주도의 아파트 자치문화 형성
 -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도시 개발로 지배적인 주거형태가 저층주택단지에서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이웃 간의 단절과 공동체성 결여는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고독사, 아파트관리비 분쟁 등)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희망제작소는 2013년부터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아파트 문화를 바꾸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이 사업의 목적은 1차적으로 주민 커뮤니티 및 공적 공간 활성화로 주민 간의 교류 및 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주민 리더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주민 개개인의 관심과 욕구를 넘어 아파트 단지 공통의 문제에 대한 자치적 해결 문화가 공동체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1. 배경

○ 개인의 필요 · 문화적 접근 ▶ 논의 · 공론 문화 형성

- 1,2차년도(2013, 2014)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은 '개인의 필요 및 문화적 욕구 중심'으로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필요가 높은 문화강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쉽게 끌고 낯선 주민들 간의 교류와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 초기 주민 관계 형성 및 리더를 발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었다.
- 그러나 이질적이고 다양한 주민들이 공존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관심과 필요 및 관계망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제로 발전해 나가거나 공론장을 형성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1,2차년도 행아공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바탕으로 3차년도(2015)행아공 사업은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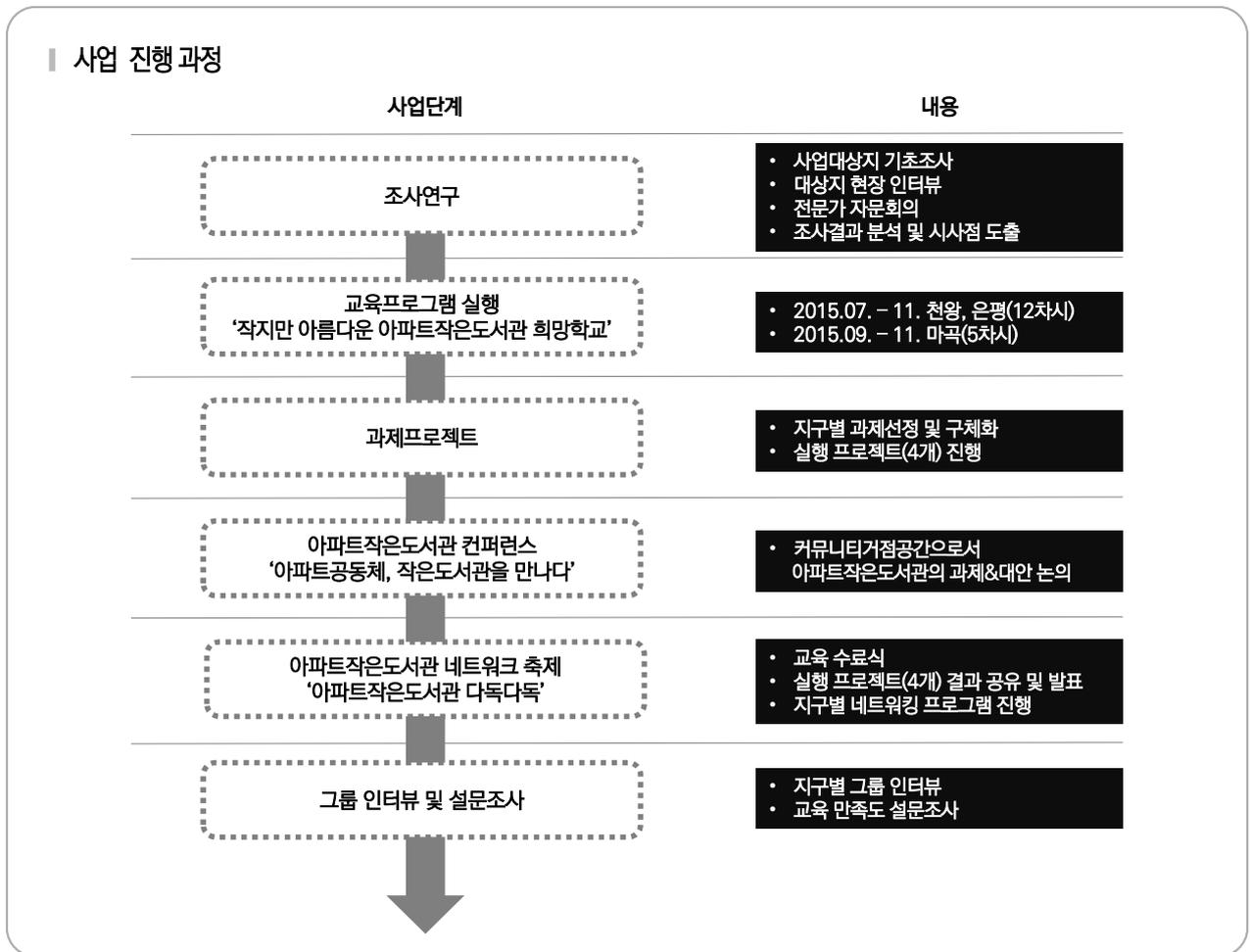
○ 아파트공동체 형성의 거점공간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에 주목 : 주민 자치 운영 공공공간, 자원활동가

- 희망제작소는 아파트 공동의 공공공간인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활동가와 그 공간에 주목하였다. 아파트작은도서관에는 자원활동을 통해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인 공동체 구성원이 있고, 자체적인 회의 및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있었다.
- 이는 행아공 담당 연구원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세 가지 조건(관계성¹⁾, 민주적 합의가능성, 공유공간)에 부합하는 곳으로 판단되었다.

1)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로 정의함.

2. 사업 진행 :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가능성 탐색

- 2015년 행아공 사업을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같은 아파트 내 거점공간이 아파트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어떤 가능성과 시사점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설계했다.



3. 사업 성과 :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가능성 확인

○ 접근성 높은 관계 형성의 거점공간

- 기존 아파트 내 주민공간은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조건이 한정되어 있거나(경로당, 입주자대표회의실) 혹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경우(헬스장, 카페)가 많은 실정이다.
- 이와 달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아파트 단지 내를 오가며 주민들이 들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가깝고 친근하며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다.
- 또한, 주민들은 책 대출 외에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나 정보 공유의 장소로 활용 가능해 아파트 내 다른 공간과는 달리 이웃과의 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성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

-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 그룹은 30~40대 전업주부가 대부분이다. 육아나 가사로 인해 사회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제한적인 전업주부들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학습과 성장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다.
- 책과 학습이 매개가 된 아파트작은도서관 내에서 자원활동가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 '엄마'로서의 정체성 외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을 통해 도서관 업무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등과 관련한 전문역량이 강화되어 '마을활동가'를 비롯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 이처럼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자치운영 경험을 통한 주체로서의 성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 공동의 문제 해결 및 자치 운영을 통한 민주적 시민성 함양의 공간

- 주민자치 경험 - 도서관 - 민주주의 순환 구조 : 도서관은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나 지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확립에 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 은평지구의 한 주민은 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성장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느껴진다”고 했다(은평지구 포커스그룹인터뷰, 2015.12). 또한 천왕지구의 주민도 “아파트작은도서관 활동을 통해 아파트 내의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대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아파트작은도서관 안에서 주민들은 대표 또는 총무를 맡아 한 조직을 운영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며 일상의 생활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다.
-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이처럼 도서관 고유의 열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과 그 외의 공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제언

■ 행아공 사업으로 본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제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으로 인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가파른 증가세로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행아공 사업을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언 1. 사립작은도서관과 구별되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 필요

(1) 배경

○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가파른 증가세

- 사립작은도서관의 증가세에 비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전체 작은도서관 가운데 2012년 747개(24.4%), 2013년 945개(24.9%), 2014년 1,173개(29.8%)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증가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1-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별 현황

년도	사립							공립	합계
	개인 및 단체	새마을문고	종교 시설	법인	아파트	무응답	계		
2012	887	508	726	150	747	39	3,057	894	3,951
	29.0%	16.6%	23.7%	4.9%	24.4%	1.3%			
2013	1,068	625	835	234	945	91	3,798	888	4,686
	28.1%	16.5%	22.0%	6.2%	24.9%	2.4%			
2014	1,178	416	934	231	1,173	0	3,932	1,302	5,234
	29.9%	10.6%	23.8%	5.9%	29.8%	0			

출처: 2014 전국작은도서관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사립작은도서관과 아파트작은도서관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운영함에 따른 혼란 발생

- 사립작은도서관과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최초의 설립목적과 취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규정 등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을 모델삼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여하면서 겪는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전체 입주민의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외부로의 도서반출이나 단지 외부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아파트작은도서관만이 가진 문제점이 존재한다.
- 즉, 이는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간의 1)물적기반, 2)공간구성, 3)인적자원, 4)SHIFT 아파트단지의 특성으로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다.

(2) 사립작은도서관과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차이

○ 물적기반에 따른 자원 조달

-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은 주어진 공간과 관리비에서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곳이 많다. 따라서 해당 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에게도 투명한 운영을 요구받는 ‘공적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이에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조직이 주민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활발한

운영이 가능하기도 하고, 갈등으로 인해 문을 닫기도 한다.

- 한편, 사립작은도서관들은 공간 임대료와 운영비, 때로는 상근활동가의 인건비까지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부나 후원모금, 정부기관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마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원사업이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에 비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 공간구성과 생활방식

- 아파트단지는 주거를 위한 공간이고,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에 놓여있는 공간이다. 즉, 일상생활과 분리됨이 없는 일상생활의 연장인 곳이다. 따라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내 아이를 키우는 육아 장소이자 교육 장소이며, 여성들의 취미생활 장소가 되며, 주민서재이기도 한 생활의 한 공간으로서 생활밀착적이다.
- 이에 반해, 일반 사립작은도서관은 주거와 상권 등 여러 기능이 혼합된 공간에 놓여 있어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이용자 계층의 다양성, 공간의 활용, 구성 등의 측면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과의 차이가 있다.
- 또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단지 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SH아파트작은도서관의 경우, 사립작은도서관에 비해 이용 및 운영주체가 여성과 아동 중심으로 단일하게 구성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업대상지 SH지구의 입주세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즉, 현재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과 달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활동이나 비전을 수립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인적자원

-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단지별로 설립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특히, 3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활동가의 부족 및 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 또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에 비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적은 편이다. 이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자들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
- 하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인근 단지끼리 비슷한 주거 환경과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인접한 위치에 있어 자원 공유가 사립작은도서관에 비해 유리한 편이다.

○ SHIFT²⁾ 아파트단지의 특성

- 시프트는 장기임대 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주 안정성이 높아 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편이다.
- 이와 같은 시프트 아파트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운영 주민들의 생애주기와 함께 변모해

2) 시프트(SHift,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장기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주로 중대형 임대주택(59㎡, 85㎡, 115㎡)을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방법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해준다. 이는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추진주체는 SH공사이다.

갈 전망이다. 예를 들면, 현재 영유아 자녀를 둔 주민이 많은 단지에서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보육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자녀들이 청소년이 될 시기에는 독서실이나 청소년 활동시설로서 그 역할이 다시 고민될 것이다.

〈표 1-2〉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

구분	아파트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물적기반과 자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에서 공간 제공, 시설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는 관리비에서 지원 • 단지 주민들의 사적 자산으로 인식 • 아파트 내에 있는 조직들,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경로당과 도서관과의 관계가 물적 기반 유지에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운영비 때로 상근 활동가의 인건비까지 확보해야하므로 다양한 활동으로 도서관을 알려 좋은 평가기준을 받아야 함 • 정부기관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마을사업 진행
공간구성과 생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민의 특성과 요구 반영 • 주민 일상의 한 복판에 위치/생활밀착적 • 설치 후 공간 개조 및 이동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상권 등 여러 기능이 혼합된 공간 • 이용자 층 다양 • 이용자의 확대, 변화에 따라 공간도 확장 변형 가능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비교적 축적되어 있음
SHIFT 아파트단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주거안정성 • 비슷한 주거환경과 지역상황, 단지끼리 인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자원을 공유하기 유리 	

(3) 차이를 반영한 개선방향

○ 정책 및 제도적 측면

- 첫째, 현재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평가와 지원사업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및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
- 둘째, 아파트 내의 주민조직(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경로당 등)과 아파트작은도서관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하며, 아파트 운영주체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아파트작은도서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작은도서관의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와 일괄적용하기 보다는 아파트단지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신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인큐베이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측면

- 첫째,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주체가 스스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둘째,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비슷한 주거환경과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비교적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활성화가 중요하다.

제언 2. 아파트작은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자원활동가 역량강화

○ 아파트작은도서관 공동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형성

- 한국사회 아파트에서 공동체는 생소한 개념이며,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정체성 및 위상 역시 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다.
-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앞서 언급한 설립근거 등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공공 혹은 사람작은도서관과 동일한 조건(9시~18시 운영, 주말 운영, 전문사서 등)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라는 낯선 공간에 대해 주민들이 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초기 세팅 단계에서 아파트단지의 주민 구성, 도서관의 활용 목적 등에 따라 의견 수렴(공간 활용, 운영 원칙 등)을 위한 주민 공론의 장을 개설하고,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상을 아파트 구성원들이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더불어 기존의 주민조직(경로당, 부녀회 등)과 달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공공의 공간이며,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 범위 및 인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사람 : 자원활동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자원활동의 경력화

-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주민 자원활동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활동가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이 SH공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나아가 대부분 30~40대 주부이자 경력단절 여성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활동을 경력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 : 아파트작은도서관 간의 자원 공유와 사회적 자본 형성

- 같은 지구 내에서도 아파트의 상황이 다르고, 도서관의 개관 시기도 차이가 있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자원활동가의 수급이 안정적인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도서관 운영체계나 장서 구성 면에서도 각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 따라서 각 아파트작은도서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이 지구단위 차원에서 원활한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여, 자원 공유를 비롯해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 지구단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넘어 SH아파트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로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SH아파트작은도서관 간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워크숍 등을 개설하여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 운영 내실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인캠프
SDS
퇴근후
Let's
HMC
인생이포차점센터
Social Innovation
Camp 36

문화예술교육 CO-UP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디어스쿨
리얼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HMC
지역공동체
모금전문가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이상해요. | 오픈포크
호혜와 연대
디자인
재발견
서로의
재구성

모금전문가
good fund raiser
1004클럽
커뮤니티
멘핑
사회적기업
therefore I am
HOPE
금용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 집단지성프로젝트
장은변화
에코라이프, 나눔
1004클럽
Make Hope
해피포터 시민문화예술을
good fund raiser 호혜와 연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인캠프 36
소셜디자인캠프 36
우리는 마음평화 데이
몬드라곤
시민문화예술을 여 행사 공간
HAPPY SENIOR AWARDS
목민관
학교 커뮤니티 멘핑 지역공동체
U3A서울
청소년진로교육

공영리더
00000
감사의식탁
social innovation
나는 희망한다
시민문화 예술을 여 행사 공간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을 여 행사 공간
예술들을 선의양자리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행복설계아카데미
행복설계아카데미
행복설계아카데미

천개의 직업
수원평생학습관 시민문화 예술을 여 행사 공간
가버린스 목민관
중심
시강
학교방
학교방
학교방
학교방

사회적기업인턴포럼 도시재생
마을이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포럼
마을기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클라우드펀딩
리포트
워킹그룹
@서울
공유경제
기자가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행복설계아카데미
행복설계아카데미
행복설계아카데미

천개의 직업
수원평생학습관 시민문화 예술을 여 행사 공간
가버린스 목민관
중심
시강
학교방
학교방
학교방
학교방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임싸이플링하라
The Young Foundation 24세대의 재발견
적정 ANIS
기술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캠프
아시아 사회혁신
어워드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기업
여럿이 함께
두번째 인생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99%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기업가 이상해요.
메니페스토
여행사 공동
문화예술교육 희망탈시대
강화재단에이학원
강화재단에이학원
강화재단에이학원

희망제작소
리얼 집단지성프로젝트
장은변화
에코라이프, 나눔
1004클럽
Make Hope
해피포터 시민문화예술을
good fund raiser 호혜와 연대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